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 3,16)

Crucifixion of Christ, 칼 하인리히 블로흐 (1834-1890)

**[제1독서]**..... 2역대 36,14-16.19-23

**[제2독서]**..... 에페 2,4-10

**[화답송]** ..... 시편 137(136),1-2.3.4-5.6  
(© 6느리)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낫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리리라. ◎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 요한 3,14-21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18] 골고타 언덕
  -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 성체성가: [180] 주님의 작은 그릇 [174] 사랑의 신비
  - 파견성가: [119] 주님은 우리 위해

##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Jesus said to Nicodemus: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desert,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ight not perish  
but migh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has already been condemned,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Son of God.

And this is the verdict, that the light came into the world,  
but people preferred darkness to light,  
because their works were evil.

For everyone who does wicked things hates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ward the light,  
so that his works might not be exposed.

But whoever lives the truth comes to the light,  
so that his works may be clearly seen as done in God.

## 묵상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오늘 미사의 입당송은 사순  
제4주일의 의미를 밝혀 줍니다. 교회는 희생과  
단식을 하며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는 사제도 보라색 제의 대신  
기쁨을 나타내는 분홍색 제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바빌론강 기슭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키루스왕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유배의 고통 중에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화와 치욕  
속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치욕적인 죽음을  
맞으실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죽음과 생명, 낮춤과 올림의 역학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시어 닫혔던 하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통하여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풍성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사순  
시기의 재계는 십자가의 비움을 향해 걸어가는  
행위인 동시에 영광의 행진입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렘브란트 성경묵상

## 사울 왕을 위해 비파를 연주하는 다윗



렘브란트, '사울과 다윗' (1656년)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가 1656년에 그린 '사울 왕을 위해 비파를 연주하는 다윗' 을 보면 같은 주제로 그린 1930년의 그림보다 더욱 우울하다.

사울은 왕관이 딸린 터번을 쓰고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망토를 두르고 있으며 창을 어깨에 걸치고 왕좌에 앉아 있다. 그러나 관객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그는 오른 손으로 창을 힘없이 들고 있고, 왼손으로 망토를 끌어당겨 눈을 비비고 있다. 그는 피해망상으로 시력을 잃었듯이 세상을 보는 판단력도 잃었던 것이다.

사울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 때마다 다윗을 불러 비파를 타게 했고, 다윗이 비파를 타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그러나 사울의 우울증을 더욱 극대화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오자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러 사울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여느 날처럼 비파를 탔다. 이때 마침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1사무엘 18,9-10)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비파를 타는 다윗은 사울의 눈치를 살피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다. 다윗은 그림의 크기처럼 사울에 비하면 외소하게만 보인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 점을 강조해서 묘사한 것은 아닐까?

다윗은 작고 겸손해서 사울을 이기고, 사울은 크고 자만해서 다윗에게 진다는 교훈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화가는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른다.

가끔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 더러운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만심에 빠진 사람을 사로잡는 법이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작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 2018년 사순 특강 “사울과 다윗”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 다윗의 기도

2018년 사순 특강이 지난 4일(일) 본당에서 있었다. 류해욱(요셉·예수회) 신부는 “사울과 다윗”을 주제로 잘못과 회개, 겸손과 믿음에 대해 설명하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되새기게 했다. 특강에 참석한 신자들은 하느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교육부에서 정리한 강의 일부이다.



인간이 세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과 하느님이 세운 다윗왕, 죄를 지은 후 두 인물이 취한 태도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살펴볼 수 있다. 사울은 겉으로만 듣는 척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배척하였기에 하느님께서도 그를 배척하셨다. 하느님께 잘못을 해 놓고 사람들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다. 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뉘우치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은 왕권, 성령, 새

마음을 다 돌려받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울은 뉘우치지 않았고 다윗은 뉘우치는 마음을 지녔다. 다윗은 성공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룩했으며, 영토를 넓혔고 점령지의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통일 국가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나갔으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만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정을 통하는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 이때 나탄 예언자는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크게 꾸짖는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4면으로)



2018년 사순 특강

## “사울과 다윗”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께서 보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다윗의 삶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이 시편 51편에 잘 나타난다.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 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중)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깊이 통회하고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청했는데 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다.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깊이 회개하고 하느님을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을 오늘날 우리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 우리의 원천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독수리는 70년을 살지만 40년을 살면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다.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잡아챌 수 없게 되고, 부리는 길게 자라 구부러지고, 깃털은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를 무겁게 하여 하늘을 날아오르기 힘든 상태가 된다.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매우 고통스런 갱생 과정을 통해서 새 부리와 새 발톱과 새 털을 얻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삶에는 많은 것들이 곱어 있어서 삶을 힘들게 하고, 죄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한다. 우리는 이 순간에 희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께 의탁해야 한다. 고백성사를 통해서 깃털을 뽑아야 한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더 나은 비전을 위해 죄스런 삶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고통스런 과정을 인내한 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버리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 새 부리와 발톱을 주실 것이다.

축하합니다!

## 증거자의 모후 브레시디움 1000차 주회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 소속의 증거자의 모후 브레시디움(단장 민인숙 데레사)이 3월 4일(일) 천 번째 주회를 갖고, 주회 후 ‘1000차 주회’를 자축하였다. 레지오 영적 지도 신부인 백인현 주임 신부는 “1000차 주회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성모님의 군대로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자”고 격려했다. 증거자의 모후 브레시디움은 1998년 12월 20일 창단 이후 20년 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의 여성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The Light is ON for You

사순 시기 동안 알링톤 교구와 워싱턴 대교구의 모든 성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고해성사를 실시합니다. 가까운 성당을 찾아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제78차 예비신자 입교식

제78차 예비신자 입교식이 지난 4일(일) 예비신자들과 친지들, 선교부원들과 교리 교사 등 4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하상관에서 열렸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한 큰 결심과 용기에 매우 감사하다” 며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부르심’ 에 응답한 것이라 여기며 신앙 생활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신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선교부원들과 교리 교사들도 한마음으로 예비신자들을 환영했다.

78차 예비신자들은 6개월의 교리 과정을 거쳐 8월 31일에 영세식을 가질 예정이다.

### 요한회 월례회 “나눔에 최우선”

50대 교우들의 활동 단체인 요한회(회장 박동성 미카엘)가 지난 2월 25일(일) 10시 미사 후 월례회를 가졌다. 이 달 14일로 예정된 애난데일 노인 아파트 방문과 5월 6일에 열릴 5개 단체 체육대회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특히 요한회 회원 자매들의 참여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회원간 나눔과 친목에 더욱 역점을 두기로 하고 공동 티셔츠 주문 및 1박 2일 자체 피정(6월 예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요한회는 연중 행사로 애난데일과 버크 노인 아파트를 각 2회씩 방문하는 등 신앙과 봉사가 어우러지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구역 임원 교육

3월 구역 임원 교육이 32명의 구역봉사자와 구역부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4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요한 3,14-21) 에 대한 묵상 자료를 통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깊이 묵상하며 참된 회개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보자” 고 말했다.

이날 교육 중에는 구역부에서 계획하는 부활절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건의사항 접수와 지난 달 건의사항에 대한 사목회의 답변을 전달하고 소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 본당 춘계 대청소 (단체부 주관)

일시 : 3월 25일(일) 10시 미사 후

단체명	담당 장소	단체명	담당 장소
요한회	본당 입구, 하상관 입구	성소후원회	하상관 체육관 정리정돈 및 의자 청소
베드로회	본당 내 전체(십자가 먼지 제거 필수)	꾸르실로	사제관 마당
파티마	친교실 A, 창문	K of C	친교실과 방, 전체바닥, 테이블 정리
성령기도회	친교실 B, 창문	레지오	주차장 전체
바오로회	하상관 1층 지하실	ME	나눔터



## Jr.High Activity **SERVE 2018**



### What is SERVE 2018?

**SERVE 2018** (formerly known as Junior High Work Camp) i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current 6<sup>th</sup>-8<sup>th</sup> graders) to encounter Christ through three days of sacraments, serve and sacrifice. Alongside four other parishes in the area, campers will come together during the day and travel to work sites in small groups around the area for a day of service. In the afternoon, the entire group engages in social activities and program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Catholic faith to play games and have fun.

### Dates & Times : July 8 - July 11, 2018

Parents and campers are required to attend the orientation meeting from 6:15pm-8pm on Sunday, July 8 at St. Leo church in Fairfax. During July 9-July 11, campers will meet from **8:30am to 8:00pm** at St. Leo Church.

### Location

All the activities and programs will be based at **St. Leo the Great Catholic Church** (3700 Old Lee Highway) in Fairfax.

### Meals

Light breakfast and dinner will be provided. However, each camper is asked to bring his/her own bagged lunch and a water bottle with them to take to their work site. While we cannot guarantee accommodations for those who have food allergies, we have fridge space.

### To Register

Registration starts on **March 11** from **10am to 1:30pm** at Sunday School Office.

- Complete a registration form (forthcoming) with **\$50** registration fee.
- Limited spaces available.
- Registration will be accepted as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 Adult Crew Leaders

We are in need of **adult crew leaders** who will be in charge of 4-6 campers during the camp. Must be able to transport the campers via car or van, must be fully compliant with OPCYP, facilitate small groups and available for the entirety of each day.

### High School Helpers

Open to current 8<sup>th</sup> to 11<sup>th</sup> graders. They will lead team building activities and work on faith and leadership development.

For more information or further questions, contact **Yunchong Boyle** (Clare) at **703-371-3589** or [spc15.re.admyc@gmail.com](mailto:spc15.re.admyc@gmail.com)



### About Quo Vadis Camp

Quo Vadis Camp offers five days and four nights at Mount St. Mary's Seminary, growing in faith, prayer and friendship with other young men as well as the seminarians, priests and religious who serve as staff for the camp. The mornings include Mass and talks, the afternoons are sports and recreation, and evening events are a mix of spiritual and fun. There is also a pilgrimage to the Grotto of Our Lady of Lourdes.

- WHEN** July 29 – August 2
  - WHO** Rising 9-12 grade boys  
Boys currently in grades 8-11 are eligible to enter the registration lottery
  - COST** **\$220**/participant  
(will be paid by SPC Vocation committee)
- The registration lottery for Quo Vadis Camp will be open **March 1-31, 2018**.

**CONTACT** **Manshik Kim** (703-403-1185)

YOU ARE INVITED

## A Special Mass for Vocations

There will be a special mass for vocations, praying the rosary for Priesthood, and Religious Life among children and young adults.

- ▶ Mass : **3/23, Friday, 7:30 pm**
- ▶ Rosary : Right after Mass

**Contact** **Manshik Kim** (703-403-1185)

### ANNOUNCEMENT

- 1. Join Youth Liturgy Service**
  - Open to students from grades 6<sup>th</sup> to 12<sup>th</sup>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Sunday School
  - To join, contact **Mr. John Seok** at (703) 581-3719 /[aranghyunbin@gmail.com](mailto:aranghyunbin@gmail.com)
- 2. Junior Legion of Mary**
  - **Who** : K - 12<sup>th</sup> grade students
  - **For more information**, (703) 635-6837

**성삼일·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 ◆ 성목요일 주님만찬 미사  
3월 29일(목) 오후 8시(미사 중 세족례)
- ◆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3월 30일, 금요일)  
십자가의 길 - 오후 3시/오후 7시 15분
- ◆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3월 31일(토) 오후 8시 30분
- ◆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4월 1일, 일요일)  
성인미사 - 오전 8시, 10시(성당)  
학생미사 - 오전 10시(친교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Northrop Grumman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 매10분 간격씩 운행)

**1 부활 합동 판공성사**

- 일시: 3월 21일(수) 오후 3-5시, 오후 7-9시
- 타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오셔서 합동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이 시간을 많이 이용하여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2 2018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받습니다. 2018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46,000입니다.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단체장 회의**

- 일시: 3월 11일(일) 오전 11:30(B-3,4)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3월 11일(일) 오후 1시(B-3,4)

**5 사도임원 회의**

- 일시: 3월 16일(금) 오후 8시(B-1,2)

**6 하상회 모임**

- 일시: 3월 18일(일) 오전 11:30(B-3,4)

**7 안나회 모임**

- 일시: 3월 18일(일) 오전 11:30(A-1,2,3,4)

**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3월 18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9 베드로회 정기모임**

- 일시: 3월 18일(일) 오후 1시(B-1,2)

**10 K of C 모임**

- 일시: 3월 18일(일) 오전 11:30(B-1,2)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3월 11일(일)	사순 제4주일	십자가의 길(오전 9:15, 성당), 단체장 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보나벤투라 피정(오전 9:30-오후 4시), 주일학교 교사회(오후 1시)
12일(월)	사순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3일(화)	사순 제4주간	하상 성인학교(하상관), 성경기도회(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전례부 모임(오후 8시)
14일(수)	사순 제4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15일(목)	사순 제4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16일(금)	사순 제4주간	금육, 하상 성인학교(하상관), 평일미사(오후 7:30), 사도임원 회의(오후 8시, B-1,2), 청소년 사순 피정(18일까지)
17일(토)	사순 제4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하상 한국학교 시낭송 대회(친교실, 하상관)
3월 18일(일)	사순 제5주일	십자가의 길(오전 9:15, 성당),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KofC 회의(오전 11:30, B-1,2),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베드로회(오후 1시, B-1)

**11 성소를 위한 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본당 자녀들의 사제와 수도 성소를 위한 미사와 묵주기도가 특별 지향으로 행해집니다.
- 미사: 3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묵주기도)
- 문의: 김만식 재권 요셉 (703-403-1185)

**12 2018 WorkCamp 기금 마련 비빔밥 판매**

- 일시: 3월 25일(일)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친교실)
- 가격: \$10 (단체 주문 환영, 포장도 가능합니다)
- 문의: 이희준 교감 (703)627-0799

**13 동중부 한인 CLC 일일피정**

- 일시: 3월 24일(토) 오전 9시 - 오후 5시 (피정비: \$30)
- 장소: 성 가정의 작은 자매회 (메릴랜드)
- 주제: "선택에 대하여" - 류해욱 요셉 신부
- 문의: 임요한 (703)201-9506

**14 2018년 페루 부갈파 단기선교 봉사자 모집**

- 선교 일정: 2018년 6월 21일(목) - 6월 29일(금)
- 모집 인원: 5명 추가 모집 (의사, 한의사, 18세 이상 청년부에서 봉사 가능한 교우분들)
- 문의: 이영옥 로사 (703)927-0404

**15 부활제대 장식꽃 봉헌 신청**

- 부활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성당 현관 입구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8년 파티마 가정 순례 성모님 접수(선착순)**

- 파티마 성모님을 가정에 모시고 기도와 봉헌을 원하시는 교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 순례 기간: 5월 6일 - 10월 28일 중 1주일 동안 한 가정에 머무심
- 신청 장소: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남영신 미카엘라 (703) 625-1578  
송정아 마리아(703) 505-6974

**17 2018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등록 안내**

- 수업 기간: 6월 25일(월) - 8월 3일(금) 6주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30 - 오후 3:30
- 접수: 선착순 200명
- 방문 접수: 3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1시(교무실)  
3월 11일(일) 오전 9시 - 오후 1시(친교실)
- 학비: 등록비 \$50 포함 (non-refundable)  
첫째: \$540, 둘째: \$520, 셋째: \$500
- 문의: 교감 (703)598-5540

**2차 헌금**

이번 주일에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 시기 동안 매 주일 오전 9시 15분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시고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사순 제4주일: 파티마 사도직 • 사순 제5주일: 성령 기도회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사순 제4주간: 1사무 26 -31, 루카 21-22

**KACM TV 하이라이트**

3월 15일(목) 오후 5:00-6:00  
3월 16일(금) 오후 8:00-9:00  
3월 18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하상 성인학교를 찾아서: 성인학교의 다양한 강좌와 수강 요령 등을 알아본다.
- 황창연 신부와 함께 하는 성경여행: 예수의 수난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3월 4일(사순 제3주일)

주일헌금	\$ 7,566.00
교무금	\$ 13,98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5,350.00
특별헌금	\$ 100.00
2차헌금	\$ 0.00
합계	\$ 26,996.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균(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검(모니카), 김 루시아,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강재자(카타리나), 백명수(마리아), 고필순(렘마), 김정희(요셉), 권전혁(요한), 전길두(베드로), 조동훈(아브라함)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분민(론지노), 이솔(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윤복채(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레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미카엘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요세), 박홍모(이나시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키엘) DMD, PC 703-825-1191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립(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도) 703-508-7743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b>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안 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 Mercedes-Benz</b> 유스티노 한 703-855-8710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스킨케어 소유</b>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피나) 703-992-7930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체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b>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이용희 변호사</b>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b>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뉴잉톤 오토바디</b>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b>SEM Education</b>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Oh My Dog</b>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b>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b>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b>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b>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ASSA 종합보험</b>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b>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b>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b>Kim Chiropractic &amp; Rehab</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b>광고 접수중!</b>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b>주일 저녁 6시까지</b>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